

“국가교통조사 조속히 참여해야”

전주시정연구원, 대광법 개정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 위해 데이터 구축 필요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교통조사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일 전주시정연구원에 따르면 김관용 전주시정연구원 도시공간부 연구위원과 김상업 전북연구원 지역정책혁신실 선임연구위원은 ‘JRI(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핑 제7호’를 통해 대광법에 전주권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보다 더욱 정밀한 전주권 교통 데이터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창했다. ‘국가교통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근거로 5

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법정 교통조사로, 각 지역의 통행실태(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얼마나 이동하는지 등)를 조사한 후 국가 교통정책과 투자사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대광법이 개정돼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새롭게 편입되면서 내년에 수행 예정인 국가교통조사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연구원은 조사가 5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내년도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 5년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 조사 참여를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국가교통조사가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이후 ‘기·중점 통행량 전수화 및 현행화 사업’이 연계 추진되는 등 전국 및 대도시권 지역의 교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분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원은 신뢰도 높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적용한 타당성 분석 결과와 정책 수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이 강한 교통정책 특성상 데이터 기반의 교통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가교통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교통흐름 변화를 시계열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 등 전주권 전체의 통행 흐름

과 생활권 연계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실효성 높은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향후 교통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 필요시 조사기반의 정밀한 데이터를 사용해 보다 신뢰도 높은 타당성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단순한 법령 변화가 아니라, 전주권이 명실상부하게 국가 광역교통체계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국가교통조사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남부시장서 촬영된 드라마 ‘당신의 맛’



전주한옥마을서 촬영된 드라마 ‘당신의 맛’

전주서 촬영된 드라마 ‘당신의 맛’ 인기

넷플릭스 글로벌 2위 등 뜨거운 반응… 전주시, 촬영 도시 각광

전주에서 촬영된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주가 촬영의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전체 분량의 80% 이상이 전주에서 촬영된 드라마 ‘당신의 맛’이 공개 사흘만에 넷플릭스의 오늘의 드라마 TPO10 시리즈 중 1위, 글로벌 2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 ENA 채널에서 방영을 시

작한 드라마 ‘당신의 맛’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전주에서 62회차 촬영(80% 이상)을 진행했으며,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도시 이름에 ‘전주’라는 지역명을 사용했다. 특히 전주남부시장과 청연루, 농소광장, 전주 대표 가맥과 콩나물국밥 식당 등에서 촬영이 이루어져 전주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주인공이 운영하는 식당의

외부는 전주한옥마을 내 상가건물에서 촬영이 이뤄졌고, 식당 내부 공간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됐다. 이처럼 전주는 로케이션과 스튜디오 촬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영화·드라마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답게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실제로 전주는 전주한옥마을과 전통

성당, 경기전 등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과 경관을 배경으로 한 로케이션 촬영이 가능하고,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스튜디오 촬영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해마다 100여 편의 작품이 전주와 전북에서 촬영되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는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수도, 전주’ 비전을 선포했으며, 그에 따라 로케이션 인센티브 확대와 추가 지원에 적극 힘을 기울여”이라며 “최근 공개된 ‘당신의 맛’ 드라마의 경우 전주가 배경이 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우아2동·지사협, 이웃과 함께하는 모내기 진행

전주시 우아2동(동장 민웅기)은 19일 우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중선) 위원들과 함께 지역 특화사업

의 일환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벼농사’ 사업의 첫걸음인 모내기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육골호 부위원장이 후원한 토지에 협의체 위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함께 모를 심으며 가을에 추수한 쌀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 첫 마중 페스타’ 24일 개최

전주역 앞 첫마중길서 프리마켓·문화공연 진행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4일 전주의 대표적인 도심 속 산책로인 첫마중길에서 프리마켓과 문화공연을 어우러진 ‘전주 첫 마중 페스타’를 개최한다. 6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 공연과 프리마켓이 공간별로 분리돼 운영된다. 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고, 광장에서는 프리마켓이 동시에 열려 거리 전체를 축제 공간으로 만들게 된다. 먼저 문화공연 무대에서는 지역 예술인이 참여해 버스킹과 전통국악, 댄스, 밴드 공연 등 장르를 넘나드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 관람객들이 도심 한가운데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무대 주변 광장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수공예 작가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이 열린다. 프리마켓에는 직접 제작한 핸드

메이드 상품과 친환경 생활용품, 간단한 먹거리 등이 다채롭게 준비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첫마중길은 기차를 타고 전주역에 도착한 관광객과 시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소로, 전주의 첫인상과 추억을 제공하는 생태문화거리이자 명품 가로숲길로 조성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근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도심형 축제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첫마중길이 단순한 보행 공간을 넘어 누구나 즐기고 머물고 싶은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에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기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국가유산 집중 안전 점검 실시

전주시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25년 국가유산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은 국가유물과 경관을 배경으로 한 로케이션 촬영이 가능하고,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스튜디오 촬영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해마다 100여 편의 작품이 전주와 전북에서 촬영되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는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수도, 전주’ 비전을 선포했으며, 그에 따라 로케이션 인센티브 확대와 추가 지원에 적극 힘을 기울여”이라며 “최근 공개된 ‘당신의 맛’ 드라마의 경우 전주가 배경이 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국가유산 6곳과 남고사와 불전사, 약수암, 일출암 등 전통사찰 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가유산 재난 대응 안내서 마련 여부 △소방설비와 방범설비의 작동상태 △국가유산 및 주변 시설물 안전상태 △배선설비 등 전기시설 안전상태 등 4가지 분야이다. 시는 점검 기간 이들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효자4동 자율방재단, 우수받이 정비 활동 나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자율방재단(단장 이진열)에서는 19일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우수받이 정비 활동에 나섰다. 자율방재단 회원들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나뭇잎, 담배꽂초 등 쓰레기들로 막혀 배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관내 우수받이를 찾아 정비하



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의 침하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